

퍼스의 도상적 기호와 종교적 상상력:

C. S. 루이스의 회심 경험을 중심으로

이윤희 한국외대 언어연구소 조교수

I. 들어가며

『변화하는 진리의 기호(Changing Signs of Truth: A Christian Introduction to Semiotics of Communication)』(2012)의 저자 크리스탈 다운잉(Crystal L. Downing)은 자신의 종교적 경험을 포함하여, 주변 그리스도인의 일화를 바탕으로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이 책에서 다룬다. 저자는 일반 독자들이 문화 기호를 다양하게 해석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기호’를 해석하는 과정도 그것과 유사하다고 언급하면서 그들이 문화 기호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정작 기호 자체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런 맥락에서 다운잉은 기독교와 문화를 논하는 방식에서 기호를 매개로 둘의 관계를 볼 것을 요청한다. 바꾸어 말하면, 문화 기호와 그것이 가리키는 것의 관계에 기초해 둘의 관계를 이해하고 의미를 찾는, 곧 객관적 이면서 주관적인 방향성을 갖는 기호 해석과정을 강조한다. 궁극적으로 저자는 우리가 기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것보다, 기호가 더 강력하게 우리를 통제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문화와 기독교 사이의 대화에서 둘의 간격을 메우는 방법이 됨을 역설한다. 기호를 매개로 한 해석 활동은 종교적 경험의 개별성이 다양성과 복수성을 넘어 어떻게 보편성을 지향하는지를 보여준다.

기호학은 문자 그대로 기호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기호는 무엇에 대한 기호, 즉 무엇을 대신하여, 혹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어서, 그것(기호의 대상)이 해석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올바르게’ 해석(기호의 해석체)되어야 하는 운명을 지닌다. 그래서 기호학은 ‘해석의 과학’이라고 이해되기도 한다. 그런데, 올바른 해석이 칸트식의 ‘목적없는 합목적성(purposiveness without a purpose)’(Raposa, 1999:134)의 역설처럼 올바른 해석에 관한 관심은 그것 자체에 대한 무관심을 수반한다. ‘올바른 해석’이라는 목적에 대한 무관심성(disinterestedness)은 기호의 과정이 올바른 해석으로 나아가게 하는 조건이다. 그러므로 기호가 어떤 것을 재현하고, 그것이 올바르게 해석되도록 해석체를 결정하는 ‘기호과정(semiosis)’은 그 과정 자체가 올바른 해석을 지향하는 목적성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다운잉의 통찰력 있는 지적처럼, 기호 사용자가 주관적 관점에서 기호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이해하는 것보다, 기호를 경험, 관찰함으로써, 기호가 그것의 대상과 맺는 관계를 이해하고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기호와 대상을 매개하는 기호 해석자에 대한 이 같은 이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종교적 체

험 혹은 영성 연구 등의 영역에서 기호학적 고찰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기호, 기호가 나타내는 것, 그리고 둘의 관계를 다른 맥락에서 번역 혹은 해석하는 해석체를 포함하는 기호과정은 미국의 기호학자 찰스 퍼스(Charles S. Peirce, 1839-1914)의 기호학에서 드러난다. 논리학과 철학에 기반을 둔 퍼스의 기호학은 현상으로서의 기호와 그것의 해석에 관심을 둔다. 한편 비인격적인(impersonal) 이원적 체계의 틀에서 기호 간의 차이에 관심을 두었던 소쉬르의 기호학은 인간이 배제된 구조를 다룬다. 퍼스 기호학에서 해석자의 지위는 독특하다. 해석자는 해석체(interpretant)로서 기호에 의해 결정되고, 이는 다시 기호가 되어 더 발전된 해석체를 결정한다. 이러한 기호 해석과정은 무한히 계속되며, 따라서 이는 기호가 재현하는 대상을 탐구하고자 하는 사고의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런 맥락에서 해석자가 기호, 대상, 해석체의 삼자적 관계에 기반을 둔 기호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해석자가 기호에 의해 결정되면서도 또한 기호를 결정하는 기호적 주체라는 점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루이스의 이미지와 상상력의 관계를 퍼스의 기호학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루이스의 회심에서 상상력의 기능을 기호 해석과정을 통해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루이스의 ‘예기치 못한 기쁨’의 본질에 대한 탐구에서 이교도적 상상력이 종교적 상상력으로 변화하는 부분에 관심을 두고, 루이스의 이미지 해석과정을 퍼스의 도상적 기호, 곧 다이어그램과 은유의 관계를 통해 검토한다. 루이스의 회심 경험에 대한 해석을 통해 진리 기호를 매개로 한 과학적 상상력과 시적 상상력이 갖는 유의미성을 기독교적 상상력의 경험적 차원에서 논한다.

II. 퍼스의 도상적 기호와 과학적 상상력

미국의 기호학자 찰스 샌더스 퍼스(1839-1914)는 표상체(representamen), 대상(object), 해석체(interpretant)의 세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삼원적 기호학의 창시자이다. 세 구성 요소는 각각 환원되지 않는 성질을 지니며 삼자적 관계를 통해 기호과정의 다양하고 본질적인 성격을 드러낸다. 퍼스의 삼원적 기호학은 기표(소리 이미지, sound-image)와 기의(사고 이미지, thought-image)로 구성된 소쉬르의 이원적 성격의 기호학과는 구별되며, 이런 점에서 퍼스의 기호 이론은 문화 기호와 자연 기호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기호학으로 이해된다.

퍼스는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호를 정의했다. 그중에서 가장 단순한 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호 또는 표상체는 어떤 측면이나 능력에서 어떤 이에게 어떤 것을 나타내는[의미하는] 어떤 것이다”(CP 2.228). 이 정의에 따라 기호는 표상체(어떤 측면이나 능력에서, 기호 전달체), 대상(어떤 것), 해석체(어떤 이)의 삼자적 관계로 구성된다. 퍼스가 편의상 ‘어떤 이’로 표현했지만, 여기서 해석체는 해석자가 아니다. 퍼스에 따르면, 기호는 어떤 이의 정신에 동등한 기호를 불러일으킨다(ibid.). 해석자의 정신에 동등한 기호는 기호와 대상과의 관계를 재현하는 해석체-기호이다. 이러한 삼자적 관계

에서 대상은 기호를 결정하고, 기호는 해석체를 결정한다. 달리 말해 기호는 대상과 해석체를 1차적으로 매개하고, 해석체는 기호와 대상을 2차적으로 매개한다. 결과적으로 해석체는 기호에 재현된 대상을 다시 재현하는 이중의 기호가 된다.

기호의 대상은 기호 체계 내부와 외부에 존재하며, 퍼스는 전자를 직접적 대상(immediate object), 후자는 역동적 대상(dynamical object)이라고 지칭하였다. 둘은 역동적 대상이 직접적 대상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존재한다(CP 8.183). 따라서 역동적 대상은 해석자가 부차적 경험(collateral experience)을 통해 발견하도록 자신을 직접적 대상에 나타낸다(CP 8.314).

표상체는 기호 전달체로서 일종의 모델이며 역동적 대상을 재현하면 도상, 지표, 상징의 양태로 나타난다. 한편 표상체가 직접적 대상을 재현하면 하위도상(hypoicons)인 이미지, 다이어그램, 은유¹⁾의 양태로 나타난다. 하위도상, 곧 도상적 기호는 각각 단순한 자질, 개별적 존재, 일반적 법칙 혹은 유형으로서의 기호이다. 앞서 언급한 다운잉의 주장처럼 기호가 가리키는 대상을 습관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기호가 재현하는 것을 또 다른 기호로서 관찰하고 경험할 때, 하위도상(hypoicons)이 우리의 관심 대상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루이스에게 하위도상은 현상적인 ‘기쁨’의 본질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가 된다. 왜냐하면 해석 활동에서 대상은 기호를 결정하고, 기호는 해석체(해석자)가 그 대상을 해석하도록 결정하면서, 기호, 대상, 해석체가 환원되지 않는 삼자적 관계로 작동되기 때문이다.

퍼스의 기호 이론은 현상에 편재하는 보편적인 세 범주에 기반을 둔다. 세 범주의 존재 양태는 첫째,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실증적으로 존재하는 양태(1차성 firstness), 둘째, 제3의 요소와 무관하게 제2요소와 관련하여 존재하는 양태(2차성 secondness), 셋째, 제2요소와 제3요소를 서로가 관계 맺도록 하는 존재 양태(3차성 thirdness)(CP 8.328)이다. 퍼스는 또한 의식(느낌)을 세 범주에 따라 구분한다. 1차성에서 의식은 단순한 느낌이고, 2차성에서의 의식은 작용과 반작용의 경우에서처럼 이중의 의식으로서의 놀라움의 경험 혹은 지각의 경험이며, 3차성에서의 의식은 둘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 의식으로서의 재현 혹은 배움이다(Peirce, EP2: 11장). 세 범주는 실제 세계에서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는다.

퍼스는 현상학적 범주와 존재론적 범주와의 상호작용에 기초해 3개의 삼분법으로 기호를 구분한다. 첫 번째 삼분법은 기호 자체의 존재론적 세 양태로서 현상학적으로 1차성에 속하는 세 기호이다. 곧 자질이 기호가 되는 자질기호(qualisign), 개별성이 기호가 되는 개별기호(sinsign), 일반적 법칙 혹은 유형이 기호가 되는 법칙 기호(legisign)가 그것이다. 이 구분은 하위도상(hypoicons)인 이미지, 다이어그램, 은유와 상응한다.

1) 퍼스는 하위도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단순한 자질 혹은 1차성의 첫째 요소로서 특징지어지는 하위도상은 **이미지**이고, 한 사물에서 주로 이원적 관계 혹은 그렇게 간주되는 부분들의 관계를 그 자신의 부분들에서 유비 관계로 재현하는 하위도상은 **다이어그램**이고, 다른 매체에서 유사성을 재현하면서 표상체의 재현적 성질을 재현하는 하위도상은 **은유**이다”(CP 2.277. 1902).

두 번째 삼분법은 기호가 (역동적)대상과 맺는 존재론적 양태로서 현상학적으로 2차성에 속하는 세 기호이다. 곧 기호가 대상과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그 자체에 어떤 성질을 지니는 도상, 기호가 인접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그것의 대상과 실존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는 지표, 기호가 해석체와 어떤 관계를 맺는 상징이 그것이다. 세 번째 삼분법은 기호가 그것의 해석체를 어떤 양태의 기호로 재현하는가에 따른 양태로서 현상학적으로 3차성에 속하는 기호이다. 곧 가능성의 기호로서의 림(rheme; 단어), 실제성의 기호로서의 다이센트(dicent; 문장), 이성의 기호로서의 논증(argument; 텍스트)이 그것이다(de Waal, 2013/2019:146).

퍼스는 삼원적 성격에 기초한 기호과정을 통해 정신적 형이상학의 주제인 신, 자아, 우주의 문제를 다룬다. 특히 "진화적 사랑(1893)"과 그가 말년에 자신의 실용주의적 방법론에 기초해 저술한 논문 "신의 실재에 대한 간과된 논증(1908)"은 퍼스 기호학적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가추적 논리와 가능성의 기호 개념을 담고 있다. 퍼스 기호학은 현상학과 형이상학과의 연계 속에서 우주론으로 확장된다. '우주가 기호로 가득 차 있다'(CP 5.448)라고 하는 퍼스 사유에 기반을 둔 기호 철학은 우주의 실재에 대한 '검허한' 논증에서 실증적 자질(느낌)과 자질에 대한 반응(경험)이 상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전제가 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임을 보인다.

우주는 살아있는 실재에서 그것의 결론에 이르는, 하나님의 목적의 위대한 상징인 거대 표상체이다. 따라서 각 상징은 유기적으로 그 자체에 연합되어, 그것의 지표인 반응(Reactions), 그리고 그것의 도상인 자질(Qualities)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반응과 자질로서의 부분들이 논증에 참여하듯이, 그것은 물론 우주에도 참여한다. 왜냐하면 그 우주가 구체적으로 논증이기 때문이다. (CP 5.119)

이런 점으로 인해 퍼스의 형이상학은 과학적 형이상학으로 이해되며 우주의 실재에 관한 논증을 이해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퍼스는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CP 5.119), 우리가 이러한 거대한 증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각적 판단이 **우리에게** 전제가 된다. 이 지각적 판단은 도상을 그것의 서술어로 가진다. 이때 도상에서 자질은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자연의 전제는 우리에게 전제가 되는 **지각적 사실(perceptual facts)**은 아니지만, 전제가 되는 한 지각적 사실과 닮아있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전제인 것들과 자연의 전제들을 비교함으로써 자연의 전제들이 무엇인지를 상상할 수 있을 뿐이다. 자연의 전제들이 전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질(Qualities)을 포함해야 한다. 퍼스는 우주에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전제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의 예를 보여준다.

논증으로서의 우주는 모든 진정한 시가 참된 논증인 것과 마찬가지로 필연적으로 위대한 예술 작품, 곧 위대한 시이다. 왜냐하면 모든 설득력 있는 논증은 한 편의 시이자 교향곡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예로 우주를 (해변을 묘사한 인상주의 작품) 회화와 비교해 보자. 그러면 한 전제에서 각 자질은 회화에서 기본적인 색의 구성요소들 중 하나이다. 색의 구성요소들은 모두 함께 전체론적으로 전체 작품에 속하는 의도된 자질로 디자인된다. 그러한

전체 효과는 우리의 지식 너머에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로 생긴 전체에서의 부분의 자질을 어느 정도는 인식할 수 있다. 그 자질들은 전제들에 속한 기본적 자질들의 결합에서 나온다(CP 5.119).

인상주의 회화를 감상하는 사람의 지각 작용은 색들의 통사적 결합에서 오는 지각적 사실의 전제에서의 자질과 그것이 표현하는 대상에 대한 지각적 판단(상상의 순간)의 전제에서의 자질 사이에 유사성을 함축한다. 하지만 도상이 대상과 자질을 공유하기 때문에, 회화를 감상할 때, 도상과 대상(의도된 자질)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고 퍼스는 지적한다(CP 3.362).

감상자가 회화를 감상하게 될 때, 처음 접할 때의 느낌은 관조적이라 회화와 그것이 표현하는 대상의 자질이 하나가 된다. 즉 감상자는 분석하지 않고, 단지 전체의 그림의 인상을 느낄 뿐이다. 하지만 관조의 순간이 멈추고, 각각의 요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상상의 순간’이 오면 감상자의 의식은 이중의 느낌으로 변하고, 회화 자체에 의도된 자질과 거기에 반응하는 자질과의 분리가 발생한다. 따라서 지각적 판단에서 전제들 사이의 자질의 유사성을 통해 회화 외부에 존재하는 대상을 상상하고 추측하는 추리과정이 일어난다. 그 결과로 해석된 지각으로서의 지각외관(재형상화)이 나타난다(Wilson 2012:179). 이를 퍼스식의 용어로 표현하면, ‘지각(대상)’(a percept)은 그것의 자질이 이미지(의식, 느낌)에 나타나고, ‘지각적 판단’(a perceptual judgement)은 그 이미지에 대한 반응으로서 상상의 결과로서 지각자의 정신에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난다. ‘지각의 외관’(percipuum)은 해석된 지각(Generals, Law)으로서 일반적 관념의 이미지로, 즉 ‘살아있는’ 은유가 된다(CP 7.629-636; Wilson, 2012:177-185). 여기서 은유가 살아있다는 점은 고정되지 않은 창조적인 가능성의 기호라는 의미이다

도상을 도상으로 만드는 조건은 대상의 실존 여부가 아니라 그 대상의 자질을 공유하는지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도상이 재현하는 대상은 실존할 수도, 아니면 상상 혹은 가상의 존재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도상의 해석과정은 상상을 통해 기호와 대상 사이에 공유된 자질의 유사성을 해석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위도상에서 대상의 자질이 직접적으로 기호에 재현된다는 점을 앞서 확인했다. 다시 반복하여 말하면 세 양태는 이미지(자질) 자체가 기호로 재현된 이미지-도상, 전체와 부분 혹은 부분과 부분의 이원적 관계가 기호로 재현된 다이어그램-도상, 두 다른 매체에서의 유사성의 자질이 기호로 재현된 메타-도상으로서의 은유가 있다. 각각은 1차성, 2차성, 3차성에 속하는 도상적 기호이며, 세 양태는 은유가 다이어그램에 의존하고, 다이어그램이 이미지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은유의 해석과정은 지표성의 다이어그램과 도상성의 이미지와 연관되어 있다. 특히 언어기호를 통한 은유를 다루는 루이스의 경우 (말)이미지와 상상력(정신의 다이어그램)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핵심적이다. 루이스에게 이미지란 시각적 이미지가 아니라 문학에 나타난 말을 매개로 한 심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퍼스의 도상적 기호 개념을 통해 루이스의 이미지와 상상력의 관계를 고찰할 때, 1차성의 존재 양태를 갖는 이미지-도상이 자질 그 자체로 실증적이지만 규정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형식이라는 점이 루이스의 회심 사건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루이스의 현상학적 경험에 대한 탐구가 이러한 도상적 기호, 곧 다이어그램-도상에 의한 지각적 판단을 통해 설명된다. 그러므로 루이스의 기쁨의 기호에 대한 탐구는 도상적 기호에 재현된 직접적 대상의 자질을 통해 해석자가 실재 대상을 상상하고, 유추하고, 해석하여 의미를 얻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는 도상적 기호의 ‘올바른’ 해석과 연관되어 있다. 이를 기반으로 다음 장에서는 루이스의 이미지와 상상력의 관계, 그리고 은유를 통한 지각적 판단과 가설적 주장을 통해 ‘기쁨’의 본질을 탐색하는 과정이 분석된다. 특히 실재와 상상을 연결하는 은유를 매개로 한 시적 상상력과 루이스의 ‘기쁨’, 즉 갈망을 갈망하는 대상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III. 루이스의 회심 과정에 나타난 ‘기쁨’의 기호와 시적 상상력

『예기치 못한 기쁨』(1955)은 C. S. 루이스(1898-1963)의 회심을 담은 영적 자서전이다. 루이스는 자서전에 흔히 나오는 개인적 일화보다 자신이 경험한 기쁨의 현상학적 측면을 고찰하고 그것의 본질을 탐색하는 과정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듯이, 루이스는 주관적인 경험으로서의 기쁨의 감정이 아니라 그 느낌을 전달하며 소통하려는 희망을 품고, 그 느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자서전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실, 이 글은 자서전의 형식을 가져와서 상상의 행위를 통해 기쁨의 원천을 설명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을 쓰는 시기로 추정되는 50대 루이스는 이성과 상상력이 조화를 이루는 시기²⁾로 어린 시절 느꼈던 신비로운 감정을 세 가지 일화에서 소개하며 그 경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그 특징은 바로 충족되지 않는 갈망, 어떤 만족감보다 그 갈망 자체를 더 갈망하게 만드는 갈망이다. 나는 그것을 ‘기쁨(Joy)’이라고 부른다”(Lewis, 1955/2017:32). 루이스는 자신이 경험한 갈망과 관련하여, 그 감정을 일으키게 한 어떤 것을 상상하고, 이를 탐색한다. 본 논문이 주목하는 것은 갈망의 대상을 상상함으로써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이다. 이를 회심의 두 과정에서 살펴본다. 첫째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로 회심하는 시기, 둘째 유신론자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기로 구분하여 루이스의 상상력과 회심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루이스의 상상력과 회심의 관계는 루이스가 가진 우주에 대한 중세적 모델과 낭만주의자적 관점의 결합을 보여준 그의 작품 『사랑의 알레고리: 중세 전통에 관한 연구』(1936)에서 드러난다. 잘레스키와 잘레스키 Zaleski & Zaleski(2015)에 따르면, 이 책의 목적은 중세의 알레고리적 사랑에 대한 시가 자연적인 표현 양식이라는 점을 회복하는

2) 루이스가 자신의 최고 작품이라고 평가한 소설 『우리가 얼굴을 대할 때까지 Till We Have Faces』에서 세켈(P. J. Schakel)은 루이스의 이성과 상상력의 관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작품의 맥락인 루이스의 정신세계와 연관하여 그 주제를 탐구한다. 그에 따르면, 20대는 시인으로서의 루이스가 상상력과 고투하는 시기이며, 30대는 비평가와 소설가로서 상상력이 사유의 도구로 기능하며, 40대는 기독교 변증가로서 이성이 주된 역할을 하며, 50대는 자서전작가로서 이성과 상상력이 조화를 이루며, 60대는 에세이작가로서 이성과 상상력이 통합된 시기이다(Schakel 1984). 세켈(Schakel)의 구성과 유사한 방식으로 본 논문은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드러난 이미지와 상상력의 관계를 작품의 맥락인 루이스의 정신의 지도를 따라가며 퍼스의 기호학적 관점에서 이를 논하고자 한다.

것이다. 다시 말해 현대인이 모든 문학, 드라마, 영화에 본질적인 ‘낭만적 사랑’-사랑에 관한 관심-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이러한 관심을 회복하는 것이며, 중세 전통의 사랑(기사도적인 사랑)을 낭만적 사랑의 알레고리(수사학적 표현 양태)로서 분석한다(Zaleski & Zaleski, 2015: 177-184).

더 나아가 루이스는 중세의 상황과 관련하여『폐기된 이미지』(1964)에서 중세인의 특성을 원시인 그리고 이교도와 비교한다(Lewis, 1964:1-12).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중세의 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집단적 행위나 제의에 의존한 원시인이 자연에 대해 갖는 상상력이 환경에 지배되는 감정의 영역에 머문다면, 중세인이 경험하는 자연은 글, 즉 언어라는 매개를 통해 사유의 대상이 되며, 또한 자연은 과학과의 연관성 속에서 경험된다. 다시 말해 중세인은 종교적인 필요보다는 과학적 접근에서 자연을 탐구한다. 또한 루이스는 이교도의 신화와 문학과 비교하면서 중세인은 조직자로서 분류하고 정리하는 일을 좋아하고, 과학, 종교, 역사를 단일한 정신의 모델로 상정한다고 언급한다. 이런 의미에서 중세의 작품, 예를 들어 토마스 아퀴나스(1224/25-1274)의 『신학대전(Summa Theologie)』과 알리기에리 단테(1265-1321)의 『신곡(La Divina Commedia)』은 우주의 모델로서 기능한다고 루이스는 주장한다(ibid. 12).

이러한 중세의 우주적 모델에 기초해 루이스는 낭만주의의 개념을 새롭게 고찰한다. 즉 낭만주의가 신성한 자연을 숭배하는 개인의 내면적인 상상의 차원이 아니고, 우주적 차원에서 로고스가 육화된 자연의 신성을 상상하는, 개인과 자연의 관계에 기초한다. “이미지와 상상력”(Lewis, 2013:Chap. 3)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루이스는 시의 객관적 중요성을 논하면서 이러한 낭만주의적 원리에 기반을 둔 상상력을 재확인한다. 문학은 상상에 존재하는 대상을 가리킨다는 주장에서 상상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맥락을 만들어 낼 수 없고 실재적인 것은 맥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재적인 것과 상상된 것이 겹쳐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루이스는 말한다(ibid.:40). 이런 점에서 문학에서 이미지와 상상력의 상호의존적 관계가 설명된다. 즉 이미지는 맥락을 제공하는 물리적 실체로 나타나고, 상상력은 거기에 반응하는 정신의 작용으로 이해된다(ibid. 45).

루이스는 언어예술인 문학에서 말(words)이 음악이나 미술의 경우와는 다르게 의미를 추구하는 수단임을 주장한다. 말은 반은 실재에 속하고 반은 상상에 속하는 문제점을 갖는데, 루이스는 이 점을 실재와 상상을 연결하는 말의 중재성(mediation)으로 설명한다. 예를 들어 시에 나타난 시어 ‘탑’ 이미지의 1차적 의미는 실재에 속하는 탑의 자질(townerness)이고, 이렇게 취해진 자질이 맥락을 제공하면서 상상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데, 즉 그 이미지를 현실에서 맥락적으로 경험하면서 2차적 의미가 발생한다. 또한 루이스는 상상력을 어린이의 놀이로 비유한다. 즉 어린이의 놀이가 실질적인 장난감이 필요하듯이, 상상력의 놀이는 이미지가 필요하다. 달리 말해 상상력의 놀이는 맥락이 필요하며 동시에 상상에서 맥락적으로 경험되지 않는 이미지는 단순한 이미지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루이스에게 문학에서 발생하는 말은 단순한 이미지의 이름이 아니고, 또한 사물의

이름도 아니다. 예컨대 “탑”은 탑의 이미지를 넘어(유사성에 기초해) 그것의 자질과 닮은 대상을 상상하게 한다. 달리 말해, ‘a를 b인 것처럼’ ($a=b$) 지각하는 순간 a의 물질적 이미지는 독자의 맥락 속에서 ‘상상의 순간’을 통해 상상된 대상으로 변한다. 여기서 연결사 ‘is’는 실재와 상상의 두 세계를 연결하는 해석자 정신의 재현이다. 예를 들어, ‘들판이 웃는다’³⁾라는 은유적 표현에서 ‘들판’ 이미지의 자질은 상상된 대상의 자질인 ‘웃는다’로서 지각된다. 이때 들판 이미지의 자질이 실제 들판에 외관으로 나타나고, 이 들판은 독자의 맥락에서 이것과 유사한 자질을 가진 대상을 상상하는 가설적 주장의 형태를 띤다. 예컨대 ‘들판은 사람이다’의 형태로 도출되는 개념적 은유가 된다.

은유의 형태 ‘ $a=b$ ’는 ‘a라면 b이다’라는 조건절을 포함하는 가설적 주장이다. 가령, ‘이 새는 파랑새이다’에서 ‘이것이 새라면’(실재), ‘이 새는 파랑새일 것이다’(가설적 주장)로 설명된다. 루이스에 따르면, “나는 대상의 성질이 A, B, C라고 상상하는 것이며(그것이 실재한다면), 그 성질은 보편성으로, 현상의 외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P, Q, R의 상황(현실)에서 나타난 대상의 성질을 가정하는 것과 같다.”(ibid.: 49). 모든 가설이 실재에 대한 가설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루이스에게 이러한 가정의 형태는 중요하다.

이는 삼원적 기호, 곧 기호(말)-대상(실재)-해석체(가설적 주장))에 기초한 사고 과정으로 설명된다. 즉 퍼스식으로 표현하면 해석자는 심리적 주체가 아니라 기호적 해석 주체로서 말을 중재로 한 상상력의 기능을 통해 실재 대상의 자질을 가정하는 가설적 추리 과정에 참여한다. 결론적으로 루이스의 상상력은 은유의 가설적 주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은유는 이미지와 상상력의 관계를 통해 루이스가 경험한 기쁨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설명하는 가설로서 기능한다.

이러한 삼원적 관계에서 은유의 의미는 해석자의 해석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데, 은유가 진리 탐구를 위한 기호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루이스에게 좋은 독서를 위해서는 이름(말)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 감정은 단지 이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이해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그 이름은 사물에 대한 기억, 곧 이전의 지식을 통해서 감정을 일으킨다는 점을 루이스는 강조한다(ibid.:51). 따라서 이미지가 이해되어야 하고, 사물에 대한 기억의 맥락 속에서 그 이미지는 대상을 상상하게 만들며, 실재를 가정하는 가설적 추리의 형태로 은유적 사고에 이른다.

3) 앤더슨은 퍼스의 은유와 다이어그램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은유적 표현, ‘들판이 웃는다’는 ‘들판’과 ‘웃는다’의 두 관계항이 갖는 각각의 자질의 유사성에 기초해 대상의 자질을 표현한다. 따라서 그 의미가 모호하며, 이는 해석자의 맥락에서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다. 반면 다이어그램은 ‘골프공이 웃는다’의 경우처럼, ‘골프공’과 ‘웃는다’의 두 관계항이 ‘구조적 유사성’에 기초해 동일한 형태를 공유한다. 그러므로 은유는 예전에 본 것 같은 느낌으로 독자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들판’과 ‘웃는다’ 사이를 결합하며 유사한 자질이 무엇인지 비교하여 의미를 찾는 해석자에게 창조적 행위가 요청된다면, 다이어그램은 ‘골프공’(슬래시가 있는 모양)과 ‘웃는다’(웃는 모양)의 두 관계항이 유비적 관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해석자는 ‘구조적’ 유사성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Anderson, 1984: 458-459). 과학의 발견에서 모델 기능을 하는 다이어그램과 예술에서 창조적 기능을 하는 은유의 이러한 구분은 루이스의 상상력과 이성의 관계에서 통합된다. 루이스에게 상상하는 행위는 도상적 기호(문학)를 매개로 심리학적 차원에서 기능하며, 다이어그램(관계 이미지)을 매개로 한 상상의 과정에서 실제 대상을 형상화(지각적 판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은유(개념 이미지)를 매개로 그것을 재형상화(가설적 주장)한다. 따라서 은유의 형태, $a=b$ 에서 해석자의 정신의 재현인 연결사(is)는 관계적 기능을 하는 지표적 성격과 그것이 재현하는 것에 대한 가설적 주장이라는 상징적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연결사는 은유적 진리라는 주제를 수반한다.

대상이 기호를 결정하고, 기호는 해석체를 결정하여, 결과적으로 해석체는 기호를 중재로, 간접적으로 그 대상을 이해하게 된다. 이것이 퍼스의 기호학에서 핵심적인 삼원적 기호의 관계이다. 루이스에게 은유는 상상력의 정신 작용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는 기호로서 기능하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의 상호작용 놀이 과정에서 대상을 알아가는, 진리의 탐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루이스는『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자전적인 이야기를 통해 상상력의 놀이를 보여준다. 루이스의 회심과 관련하여 상상력의 기능과 역할에 관해 살펴보는 것은 종교적 상상력의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상술된 책의 마지막 14장과 15에서 루이스는 자신의 회심 과정을 유신론자와 그리스도인이 되는 두 단계로 나누어 기술한다. 루이스는 1장 “어린 시절”에서 신비한 경험을 ‘기쁨’ Joy이란 말로 표현함으로써 그 이후 10장까지의 이야기는 그 “기쁨”의 원천을 탐색하고 설명하려는 일종의 배경 혹은 맥락을 제공한다. 그리고 11장 “체크”는 이렇게 시작한다. “기쁨의 역사가 바그너 음악과 북유럽 신화 및 켈트 신화의 거대한 물결을 타고 찾아와 다시 개시되었다고 말한 지도 꽤 되었으니, 이제 그 이야기를 해야겠다”(Lewis, 1955/2017: 239). 11장 이후는 그 기쁨의 원천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회심의 사건을 기술하고 특히 11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은 문학의 언어가 상상력과 실재를 연결하며, 이미지와 상상력의 관계가 상호의존적이라는 점을 깨닫는 과정을 담고 있다. 특별히 상상력이 실재와 연결되는 것은 루이스의 회심 과정을 가능하게 한 일종의 세례와 같은 사건이었다. 루이스는 우연히 접하게 된 조지 맥도널드의 『판테스티스 Phantastes: A Faerie Romance for Men and Women』를 읽은 경험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판테스티스』를 통해 책이 실제 세상에 밝은 그림자를 드리워 모든 평범한 사물을 변모시키면서도, 정작 그 그림자 자체는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평범한 사물이 그 밝은 그림자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는 모습을 본 것이다. [...] 그 날 밤, 나의 상상력은 어떤 의미에서 세례를 받았다.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니지만, 나머지 부분들이 다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다.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판테스티스』를 사게 되었는지 전혀 모를 일이었다. (Lewis 1955/2017:262)

이후의 변화들은 루이스가 여러 개념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는 세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루이스가 감각과 감정 그리고 의지가 나의 소유가 아니고 원인에 대한 반응의 부산물이고, ‘인간의 존재는 인간의 행동과 일치된다’(ibid.: 339)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행동하는 경험 주체는 절대자의 실재에 이끌리지만, 일원론적으로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가능한 상황 속에서 자유를 느끼는 존재라는 점이다. 루이스는 이러한 경험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기이한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포위하시기 전에 전적으로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라고 할 만한 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랬다”(ibid.: 320). 루이스는 이런 선택의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필연성은 자유의 반대말이 아

닐 수 있으며, 인간은 굳이 동기를 만들어 내는 대신 ‘내 행동이 곧 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울지 모른다”(ibid.: 322). 이 같은 루이스의 사고는 말의 삼원적 기호과정에 해석 대행체로서 참여하는 해석행위가 바로 그러한 선택 행위와 유사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나님에게 이끌리면서도 루이스는 신비한 현상적인 기쁨의 경험의 원천을 탐색하면서 진리를 추구하는데, 이 과정은 말을 중재로 실재와 상상에 기반을 둔 설명, 즉 두 영역의 비교를 통한 해석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두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첫째, 무신론자 루이스가 유신론자가 되는 단계이다. 이 시기는 루이스의 상상력이 문학적 상상력(신비학, 마술, 초자연적인 것)에서 종교적 상상력(유신론적 관념론, 절대영)으로 변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시와 문학을 접하던 20대 루이스는 문학적 이미지 자체에 몰두하며 상상력이 실재와 분리된 환상의 공간에 머문다. 다시 말해 말은 맥락을 제공하지 못하는 이미지의 이름으로서만 기능하고, 따라서 맥락을 제공받지 못한 상상력과 고투하는 시기로 특징지어지는 시기다.

루이스는 이 시기에 의식과 무의식의 구분 대신 ‘무의식’, ‘향유되는 것’, ‘관조되는 것’이라는 세 가지 구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발견하고, 기쁨을 기다리며 지켜보았는데도 얻지 못한 것은 향유되는 것을 관조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⁴⁾. 덧붙여 “이미지나 감각이 기쁨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정신적인 흔적에 지나지 않음을 -파도가 아니라 파도가 모래 위에 남긴 자국에 지나지 않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ibid.:314). 그리고 이미지와 감각은 기쁨을 상기시키는 존재라는 점을 확인한다(ibid.: 314-15). 결과적으로 루이스는 그때까지 “누가 내 갈망의 대상이냐”라고 묻는 대신에 “무엇이 내 갈망의 대상이냐”라고만 묻고 있었다고 진술한다(ibid.:316).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그 무언가는 몸보다 훨씬 더 객관적인 존재이다. 왜냐하면, 몸처럼 감각의 옷을 입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감각의 옷을 입지 않은 타자, 형상도 없고(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하여 오만 가지 형상을 만들어 내서 절을 하지만) 무엇으로 규정되지도 않는 미지의

4) 이러한 깨달음은 상상력이 이미지에 대한 감각 지각이 아니라 세 가지 구분에 기초한 지각작용과 연관된다는 점이다. 루이스가 유물론적 관점에서 본 몸과 정신의 이분법을 극복하는 데 영향을 미친 사무엘 알렉산더의 책 『시간, 공간, 신성』(1920)에서 ‘향유(enjoyment)’와 ‘관조(contemplation)’의 구별은 루이스의 생각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모든 경험에는 두 가지 양상이 존재하는데, 지각하는 행위와 지각작용의 대상이다. 지각자는 **지각하는 행위**를 향유하고, 지각자는 **지각된 것**을 관조한다”(Zaleski & Zaleski 2015:164; 강조는 필자의 것). 루이스는 이 생각을 그의 철학 수업에서 설명하고, 학생들은 이 두 구별을 명확히 이해한 것 같다고 회상한다. 그리고 한 여학생이 자아에 관심을 두고 있던 또 다른 여학생에게 한 말에 주목한다. “그것은 마치 네 눈으로 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네가 눈을 벗어나서 그 눈을 보는 것을 원하는 것과 같아. 그러면 그 눈은 눈이 아닐 수도 있지”(ibid.). 루이스 학생의 대화는 퍼스의 경험과 지각과의 관계를 암시한다. 퍼스는 감각 지각과 사건(경험을 통한 지각의 변화)의 지각을 구별한다(CP 1.335-336). 예를 들어 시지각의 경우, 지각자는 두 겹으로 대상을 본다. 즉 물리적 눈과 마음의 눈(mind's eye)을 통해서이다. 전자가 감각에 기초한 지각이라면 후자는 ‘**경험**’과 연관된 지각이다. 하지만 둘은 지각작용에서 연결되어 있다. 퍼스의 용어로 구분하면, 감각 지각과 결부된 지각대상(a percept), 사건 경험으로서의 지각적 판단(a perceptual judgement), 경험을 통한 배움으로서의 지각내용(percipuum)이다. 지각의 행위를 향유하는 주체는 심리적 영역에 속하며, 지각 작용의 대상을 관조하는 주체는 ‘지각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과학적 지성으로서의 ‘기호적 자아(semiotic self)’로 이해된다. 루이스의 문제는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을 과대평가하고 그 경험의 대상을 과소평가한 점에 있었다. 즉 “향유되는 것을 관조하려 했다”(Zaleski & Zaleski 2015:164.). 이러한 사유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그는 ‘내재적인 욕망의 변증법’(inherent dialectic of desire)을 발견한다(ibid.).

존재, 갈망의 대상이었다”고 판단한다(ibid.:317). 이 시기에 루이스는 비그리스인인 작가 중 낭만주의자들을 높이 평가하는데, 그들 다수가 짙은 종교색을 띠고 있었고, 때로 기독교 냄새까지 풍겼다고 언급하기도 한다(ibid.:307).

무신론자 루이스는 주관적 경험에 기초한 이미지와 감각에 지배되는 문학의 환상적 공간에서 벗어나 ‘말’이 이미지와 사물을 연결하는 관계적 이미지를 매개로 실재 대상을 상상하게 된다. 즉 루이스의 상상력은 문학 언어를 매개로 상상과 실재가 상호작용하는 종교적 상상력으로 변화한다. 유신론자로 회심한 루이스에게 이미지(단순한 이미지)와 상상력(관계적 이미지)의 관계가 상호의존적이 된다. 이러한 관계는 한편으로는 이미지가 상상력에 의해 무한하게 계속되는 추상성에서 벗어나 고정되게 하는 효과를,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지로 인해 맥락을 제공받는 상상력이 이미지의 자질(보편성)을 확장하는 기능을 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미지와 상상력의 관계에 기반해 생성된 은유적 표현은 실재를 가정하는 가설적 주장으로서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일반적 관념을 얻는다.

실재 대상에 관한 관계적 이미지는 구조적인 유사성으로 인해 정신에 유사한 관계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달리 말해 유비 기호는 실재 대상을 구조적으로 유사하게 정신에 나타내도록 매개하는 다이어그램-도상이라고 이해된다. 이런 맥락에서 다이어그램을 통한 추리는 상상의 행위와 지각작용을 통해 다이어그램을 조작하는 과정. 즉 두 이미지의 관계를 상상하며 그것이 재현하는 실재 대상을 추리하는 정신의 실험으로서의 탐구 과정이다(Kaag, 2014:105-107, 111-118; Stjernfelt, 2007: Chap. 4). 예컨대 문학 기호에서 다이어그램의 관계 이미지를 매개로 한 상상의 행위에서 실재 대상의 관계 이미지가 독자의 정신에 유비 기호로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에서 문학 기호를 매개로 한 실재와 상상의 두 관계는 전체와 부분 혹은 부분과 부분의 관계가 해석자의 정신에 다이어그램-도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실재 대상을 표현하는 문학작품에서 다이어그램-도상이 재현하는 대상은 구조적 유사성에 기초하여 정신에 상상된 대상(형상화)으로 재현된다. 이러한 구조적 유사성에 기초하여 실재 대상과 상상된 대상 사이에 유사성의 자질을 해석하는(가치를 부여하는) 주체의 가설적 주장은 개념적 은유로 발전한다. 곧 상징의 양태로서 사고의 형태(재형상화)가 된다.

유신론자 루이스에게 상상된 대상(형상화)은 정신의 실험으로서의 다이어그램-도상을 매개로 사유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실재 대상의 형상화 과정에서 지각적 판단의 결과로서 나타난 은유적 표현의 통사구조에서 확인된다. 궁극적으로 은유와 상상력은 실재 대상을 탐구하는 앎의 도구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앎의 도구는 오웬 바필드와의 영적 전쟁에서 기술되듯이, 루이스가 ‘의미’(어떤 것에 대한 경험)와 ‘지식’(어떤 것의 존재 여부)을 구별하려고 한 점(Thorson, 2015: 140)에서 루이스의 상상력이 성장하는 조건을 마련한다. 달리 말해 루이스는 상상력은 영적인 영역이 아니라 심리적인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믿게 되고(ibid. 150), 따라서 은유를 진리가 아니라 의미의 문제로 접근하며 은유를 매개로 한 논증에서 상상력은 의미를 얻는 과정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 과정은 루이스가 회심 후, 상상력에 대한 형이상학적 관심에서 벗어났지만, 이 점이 자신이 문학을 통해 경험한 상상적인 경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개인적 경험을 개별성(individuality)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기독교와 문화”라는 주제의 글에서 나타나듯이 루이스는 이러한 개별성의 개념에 기반하여 문학을 매개로 한 상상력의 기능을 이성과의 협력을 통해 실재 대상을 탐구하는 기제로 이해하게 된다(ibid. 148-149). 개별기호로서 유비 기호(다이어그램-도상)를 매개로 사유하는 루이스는 정신의 다이어그램에서 작동하는 관계 이미지가 보편성을 지닌 실재하는 대상에 대한 이미 지임을 깨닫는다. 그러한 실재는 종교적이고 영적인 어떤 것으로의 사유 대상이다. 일종의 신화적 상상력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 방식이 현실의 대상을 더 깊게 사유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깨닫는다.

둘째, 루이스가 유신론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하는 단계이다. 루이스는 마지막 15장 “시작”에서 1929년 자신의 회심은 유신론을 향한 회심이고 기독교를 향한 회심, 즉 성육신에 기초한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회심이라고 고백한다. 세월에 따르면, 회심 후 30대의 루이스는 상상력을 이성의 도구로 삼아 비평가와 소설가로서 활동한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유신론자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서 루이스의 상상이 추상성에서 구체성의 성격을 띠게 된다는 점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리어왕의 성격과 그리고 연극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그 성격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인 것처럼, 말, 리듬, 그 연극의 구조가 그것들을 통해서 도달하게 되는 ‘주제’ 혹은 ‘내용’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서 형식이나 물질은 추상적이지만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형태를 갖춘 물질이며, 육화된 형식이다. 즉 비극적 상황이나 혹은 성격이 다른 것이 아닌 이러한 말에 체현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루이스는 미학적 경험과 인지적 경험은 분리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Lewis, 2013:52-53). 다시 말해 이미지가 외관을 통해 현실의 대상에 실재하고, 그 이미지의 형식(자질)이 육화되어 언어에서 형상화된다는 점을 루이스가 깨닫는다.

그 사고의 핵심에 **성육신(incarnation)**의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 즉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으로서의 회심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은 하나의 종교도, 하나의 철학도 아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 모든 철학의 요지이자 실재이다.” (Lewis, 1955/2017:338) 라고 진술하는 루이스는 머릿속의 절대 영이 아니라 기독교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리고 실제로 어느 화창한 아침 워싱턴의 동물원으로 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ibid. 338). 이 경험에 대해 루이스는 이것이 자유의지의 경험이었을까 아니면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될 경험이었을까 자문한다. 루이스의 결론은 최고점 즉 인간의 존재가 인간의 행동과 일치될 때 두 경험이 구별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ibid.:339).

루이스가 제기한 문제는 기독교적 상상력과 경험의 관계를 논하는 지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루이스는 기쁨의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경험을 강조하는데, 마치 사냥개가 냄새를 잘못 맡은 것 같은 경우에서처럼 오류가 있어도 “경험은 정직한 것

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접어들 수는 있지만, 눈만 크게 뜨고 있으면 그리 멀지 않아 경고 표지판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ibid.:256). 이어서 “사람은 자신을 속일 수 있지만, 경험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는 진술을 통해 경험이 우리 위에 존재한다는 점을 드러낸다(ibid.:257).

루이스가 진술하는 두 형태의 경험은 다음과 같이 재진술될 수 있을 것이다. 필연적 경험의 경우는 원인에 의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경험의 형태로서 수동적이기 때문에 기계적인 사고에 머문다. 반대로 자유의지의 경험은 주관성과 우연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목적성을 상실하여 감각, 감정을 이상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두 형태의 경험은 이 둘을 연결하는 또 다른 경험으로서 설명될 수 있는데, 곧 둘을 비교하면서 연결하는 중재의 경험, 즉 ‘경험에 관한 경험’이다. 퍼스식으로 표현하면 배움의 경험이다 (Peirce EP2: 11장). 즉 기호의 삼원적 관계를 통해 사고하는 경험으로서 가령 이미지-도상과 대상의 관계에 기초하여 표상체로서의 이미지가 대상의 무엇을 표현하는지를 인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지가 대상의 자질 자체를 공유하는지, 아니면 이미지가 그것의 대상을 가리키며 어떤 관계적 자질을 재현하는지를 식별하는 것이다. 이미지가 대상의 자질을 공유하면 마치 추상회화에서처럼 지각자는 우상과 신을 구분할 수 없는 느낌을 경험한다. 하지만 언어기호인 말에서처럼 이미지가 대상을 표현하면 루이스의 지적대로 “마치 신과 우상이 가장 가까워진 지점인데도, 신과 우상을 혼동할 위험은 가장 적다”(ibid.:261). 왜냐하면 말의 이미지가 맥락을 제공하여 독자가 둘을 연결하는 경험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그 맥락은 독자에게 시간과 공간의 개별 상황으로 나타난다. 이미지와 개별적인 상상력 사이에서 선택 행위, 즉 독자의 해석행위는 관계 이미지가 재현하는 대상의 실재에 대한 (가설적) 판단행위와 다르지 않다. 즉 말에 책임을 지는 증언 행위로서, 이는 지각적 판단에 기초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설적 주장으로서의 은유가 삼원적으로 만들어지며, 이런 점에서 은유는 진리를 탐구하는 가능성의 기호가 된다.

이성과 상상력이 조화를 이루는 시기인 자서전작가로서 루이스는 자신이 20대에 경험한 기쁨을 탐색하는 과정을 지각의 경험을 통한 배움의 경험으로서 기술한다. 즉 기쁨의 자질이 먼저 존재하기에 그 효과로서 루이스가 그 기쁨을 지각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배움의 경험은 경험 자체와 그 경험에 대한 지각을 통한 배움이다. 이런 의미에서 루이스는 끝에 다시 기쁨의 주제로 돌아와 그 기쁨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말한다. 그것은 일종의 표지판의 역할을 한다. 그 표지판은 그 안에 쓰인 글자를 이해해야만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갈 수 있다. 이제 그 표지판 자체가 관심을 끌지는 않는다. 그러나 길을 잃었을 때는 그 표지판을 찾아야 한다(ibid.:340). 루이스는 『예기치 못한 기쁨』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서 그 기쁨을 지시봉 삼아 목적이 이끄는 여행을 하고 있음을 증언한다. 50대의 루이스가 이 책을 쓰는 행위 자체는 자신의 기독교적 상상력의 힘을 믿음과 증언의 형태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 변증가로서 루이스는 진리의 기호를 통해 의미를 탐구하는 경험의 증언을 그의 자서전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며, 우리는 루이스의 회심과 그것의 의미를 기호-대상-해석체의 삼원적 관계에서 발견한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

루이스는 ‘예기치 못한 기쁨’의 이미지로부터 제공되는 맥락에서 실재의 대상을 상상하는 행위를 매개로 이성과 조화를 이루는 상상력의 힘을 자신의 삶 속에서 재현한다. 경험을 경험하는 배움의 경험을 통해서.

IV. 결론을 대신하여: 종교적 상상력과 경험에 관한 기호학적 함의

유진 피터슨은 『현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창조성과 관련하여 “신성을 추적하는 탐정”이란 표현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임을 의심할 수 없는 것의 증거로서 우리가 표적을 해석하고 말씀을 이해하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신성을 추적하는 탐정’으로 훈련시키신다”(Peterson, 2005/2018:200). 본 논문은 퍼스 기호학적 관점에서 ‘신성을 추적하는 탐정’의 태도로 진리의 기호를 탐색한 루이스의 회심 경험의 궤적을 기술하고, 이미지와 상상력의 관계를 매개로 기쁨의 기호를 해석하는 회심 과정을 보였다. 앞서 언급되었지만, 루이스와 퍼스의 접점은 삼원적 철학에 기반을 둔 기호학과 문학에서 상상력의 기능이다. 퍼스의 ‘과학적 상상력’을 정신의 다이어그램-도상으로서 설명하고, 루이스의 문학에서 말을 매개로 한 ‘시적 상상력’이 실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리를 가리키며 해석자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였다. 다시 말해 기호과정(semiosis)은 과학적 상상력과 시적 상상력에 기반을 둔 진리의 기호를 매개로 기호 해석 대행자로서 기호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될 의미 탐구의 과정이다. 이러한 기호과정은 가능성의 기호를 중재로 진리를 탐구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적 상상력과 경험에 대한 함의로서 유의미하다. 진리 기호의 표상체를 매개로 해석자는 경험을 통해 의미를 얻는 실제적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상상력의 기능은 루이스에게 회심이라는 실제적 결과로 나타난다. 즉 그것은 그가 경험한 기쁨의 실체가 진리의 기호로서 그것이 재현하는 것이 어떤 것을 갈망하는 마음, 즉 하나님과 하나 되는 갈망에 대한 갈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게 되는 경험이다.

본 논문은 실재 대상에 관한 유추적 사유 방식인 은유의 개념을 토대로 두 사람의 사유를 중첩시켰다. 루이스의 은유 개념은 삼원적 기호 모델에 기초하여 표현적 양태와 상징적 양태로서 나타난다. 다시 말해 표현적 양태는 도상적 기호로서 해석자에게 어떤 느낌 혹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한편 상징적 양태는 해석자의 정신에 어떤 사고를 불러일으킨다. 메타 도상으로서의 은유는 두 양태를 비교함으로써 자질의 유사성을 해석하여 그 결과로 의미를 발생하게 한다. 즉 은유는 기호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의미’를 추구하게 하는 모델-표상체로서 그것이 재현하는 실재 대상에 대한 진리를 탐구하는 기호학적 기제가 된다.⁵⁾

5) 은유적 진리의 문제는 인지학(anthroposophy)적 관점의 오웬 바필드와 기독교적 관점의 루이스 사이의 “대전(Great War, 영적 전쟁)”에서 논쟁점이 된다. 루이스에게 은유적 진리는 시적 상상력으로 가추적 추리를 통해 자질의 유사성을 해석한 결과인 ‘의미’에 존재한다(그것이 참이라면). 반면 바필드에게 최고의 영적 세계의 인간 자의식은 상상의 경험을

그리스도인으로 회심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 요인으로서 루이스가 성육신을 믿게 된 경험적 사건은 회심 이후의 그의 진술에서 더 유의미해진다. 즉 ‘기쁨’이라는 진리 기호가 자신이 무엇인지를 드러낸 후 이제 그것이 이정표(지표)로서 외부의 어떤 다른 대상을 가리킨다는 사실이다. 즉 나를 벗어나서 타자를 향한 시선을 갖게 한다. 이 점은 루이스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의 표현으로서의 도상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해 삶의 여정 중에 경험하게 될 영적 성장에 대한 암시를 보여준다. 우리는 진리 기호의 해석과정은 상상력과 이성의 조화를 통해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을 루이스의 사유 과정을 통해 배운다. 즉 상상의 행위를 통한 유비 기호에 기초해 실재 대상과 상상된 대상을 비교하는 해석 능력이 그것이다. 더 중요하게는 루이스의 ‘경험에 대한 경험을 사유’하는 과학적 상상력을 통한 탐구적 태도와 진리가 이끄는 방향으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자세이다. 루이스의 상상력을 통한 사유는 일상을 습관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관찰과 상상의 행위를 통해 창조적인 문화를 만드는 문화 활동을 함의한다. 개인의 사유는 공동체적 탐구와 문화 활동 안에서 더 풍성해지며, 결과적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작용은 둘 다 발전, 성장하는 공진화의 기회가 된다. 궁극적으로 퍼스의 기호학적 관점에서 본 루이스의 회심 경험이 우리에게 던지는 본질적 문제는 자아(self)에 대한 개념이다. 기호 해석 대행자로서 삼원적 기호과정에 참여하는 해석자는 역동적 대상과의 관계에서 숙고하는 주체로서의 기호적 자아이며, 이를 루이스에게서 발견한다. 즉, 시인이자 소설가이자, 비평가이자, 논증가이자 에세이스트로서의 루이스의 자아는 하나님의 정신에 속한 자아이며, 이는 퍼스가 주장하는 기호학적 관점에서 본 인간의 주체성의 개념을 통해 드러난다.

참고 문헌

- Anderson, D. (1984). "Peirce on Metaphor." *Transactions of the Charles S. Peirce Society*. 20(4). 453-468.
- de Waal, C. (2013). *Peirce: A Guide for the Perplexed*. London; New Delhi; New York; Sydney: Bloomsbury. 이윤희 역(2019). 『퍼스 철학의 이해』. 개정판.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
- Downing C. L. (2012). *Changing Signs of truth: A Christian Introduction to the Semiotics of Communication*. Illinois: IVP Academic.
- Kaag, J. (2014). *Thinking Through the Imagination: Aesthetics in Human Cognition*.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통해 진리와 거짓을 알 수 있는 지식에 도달할 수 있고, 따라서 은유적 진리는 '사실적 진리'에 존재하는 지식에 있다(Thorson 2015: Chap. 7).

- Lewis, C. S. (2013). "Image and Imagination." in Hooper, W. (2013). *Image and Imagination: Essays and Reviews by C. S. Lewi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wis, C. S. (1964). *The Discarded Image: An Introduction to Medieval and Renaissance Literatur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wis, C. S. (1955). *Surprised by Joy: The Shape of My Early Life*. 강유나 역(2017). 『예기치 못한 기쁨』. 서울: 홍성사.
- Peirce, C. S. (1931–58). *Collected Papers of Charles S. Peirce*. 8 vols. Ed. by C. Hartshorne and P. Weiss (vols. 1–6), and A. Burks (vols. 7–8).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CP refers to Collected Papers of Charles S. Peirce, followed by the volume number and paragraph number].
- Peirce, C. S. (1998). *The Essential Peirce: Selected Philosophical Writings* (vol. 2). Ed. by The Peirce Edition Project.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EP refers to The Essential Peirce: Selected Philosophical Writings]
- Peterson, E. H. (2005). *Christ Plays In Ten Thousand Places: A Conversation In Spiritual Theology*. 이종태, 양혜원 역 (2018). 『현실, 하나님의 세계』. 서울: IVP.
- Raposa, M. L. (1999). *Boredom and the Religious Imagination*. Charlottesville and London: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 Schakel, P. J. (1984). *Reason and Imagination in C.S. Lewis: A Study of Till We Have Faces*.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Stjernfelt, F. (2007). *Diagrammatology: An Investigation on the Borderlines of Phenomenology, Ontology, and Semiotics*. Springer.
- Thorson, S. (2015). *Joy and Poetic Imagination: Understanding C.S. Lewis's "Great War" with Owen Barfield and its Significance for Lewis's Conversion and Writings*. Hamden, CT: Winged Lion Press.
- Wilson, A. (2012). "The Perception of the Generals." *Transactions of the Charles S. Peirce Society*. 48(2). 169–190.
- Zaleski, P. and C. Zaleski (2015). *The Fellowship: The Literary Lives of The Inklings: J.R.R. Tolkien, C.S. Lewis, Owen Barfield, Charles Williams*.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ebook.